

파쿠아오 맞는 '무한도전', 또 하나의 '레전드' 쓸까



MBC 예능 '무한도전'을 거쳐 간 스포츠 스타들은 항상 화제였다. 그동안 많은 스타가 '무한도전'에 출연해 예능감을 뽐냈다. 2006년 테니스 요정 사리파코비를 시작으로 피겨 퀸 김연아, 축구 전설 티에리 앙리, 격투기 황제 포도르, 미국 프로 농구 3점 슈트 달인 스테판 커리가 출

연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운동선수 외에도 할리우드 배우 잭 블랙도 무한도전을 찾아 눈길을 끈 바 있다. 잭 블랙은 미국 유명 토크쇼 '엘런쇼'를 통해 '무한도전'에 대한 인상을 전했다. 그는 "한국에서 진통 있고 강렬한 예능에 출연했다"며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했다. 그런가 하면 티에리 앙리는 무한도전 멤버들에게 "인젠가 유럽으로 오라 다시 한번 뽐내자"고 제안했다. 성사되지 않았으나 빈말은 아니었다. 앙리는 무도 멤버들에게 "너희들 실제 친구냐 (나도 그룹에 합류하고

스포츠 스타와 함께 다양한 웃음줬던 '무도' 시청자들 궁금증 자아내며 이번 편도 기대

했다"며 돈독한 우정에 부러움을 드러냈다. 무한도전 스테판 커리 편은 정점을 찍었다. 무도 김태호 PD의 '찰의력'이 빛을 발했다. 커리는 무도 멤버들과 핸드캡 농구대결을 벌였다. 초대형 골대, 4미터 마리오네트 인형이 등장해 볼거리를 제공했다. 방송 후 USA 투데이, ESPN, CBS 등 북수의 외신이 무도 커리 편을 상세히 전했다. CBS 기사는 "무한도전을 처음 알게 됐다"며 신선하고 창의적인 예능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국 NBA 팬들은 "커리(워리어스 소속)를 막는 방법을 알아냈다"며 "워리어스의 라이벌팀 클리블랜드는 정준하의 마리오네트와 당장 계약해야 한다"고 우스갯소리를 냈다. 커리 편 덕분에 미국에서도 무도 멤버들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었다. 무

한도전 제작진은 지난 8월 '미국에서 촬영 도중 유재석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어 신기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번엔 '팩맨' 파쿠아오와 '무한도전' 멤버들은 '복싱 전설' 매니 파쿠아오(36·필리핀 상원의원)와도 만난다. 제작진은 지난 21일 파쿠아오와 녹화를 마쳤다고 밝혔다. 파쿠아오는 최근 가족과 함께 방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그는 일주일간 한국에 머물며 국회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파쿠아오는 복싱 사상 최초로 8체급을 석권한 인물이다. 오스카 벨라호야, 안토니오 바레라, 웨인 모슬리, 폴로이드 메이웨더 등과 명승부를 벌이며 프로 통산 59승 2무 7패를 기록했다. 무한도전 제작진에 따르면 파쿠아오는 박명수, 하하 등과 스퍼링을

할 예정이다. 복서 출신 배우 조성규가 특별 출연해 주심을 맡는다. 무한도전은 매년 예측불허 섭외로 놀라움을 자아낸다. 멤버들은 지난 9일 방송된 수능 미션에서 200점을 넘지 못해 박명수, 하하, 양세형이 파쿠아오와 스퍼링 대결에 당첨됐다. 벌칙에 가까운 스퍼링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무한도전'의 모토는 '무모한 도전'이다. 승인이 허락한 경기에 맨몸으로 달려들었다. 시청자들은 언더독의 노력을 응원해왔다. 무도 멤버들이 파쿠아오와 두 주먹으로 싸울지, 커리 편처럼 기상천외한 핸드캡을 즐기 궁금증을 자아낸다. 12번째 방송을 이어온 최정수 예능 '무한도전', 노홍철과 정형돈의 하차 등 부침도 있었지만 '무한도전'은 '무한도전'이다. 최근 시청률 정체 등 위기를 맞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제작진 PD와 멤버들이 잡음을 잠재우고 재도약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원해 등 명품 조연군단 '추리의 여왕 시즌2' 출연 확정



'추리의 여왕 시즌2'에 배우 김원해, 민성욱, 김민상, 김중수가 출연

을 확정지었다. KBS2 새 수목드라마 '추리의 여왕 시즌2' (극본 이성민·연출 최연석) 측은 27일 "김원해, 민성욱, 김민상, 김중수가 합류한다"고 밝혔다. '추리의 여왕 시즌2'는 장미구니를 단재버린 설옥(최강희)과 막강 회장이 등장한다. 김원해는 거느리고 돌아온 안원해(권상우)이 크고 작은 사건을 해결하며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생환발착형 추리드라마. 먼저 선과 악, 경계 없는 연기를 펼치는 김원해는 강력 2팀 조과장 역할을 맡아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눈물이 나고 시도 때도 없이 바다가 보고 싶은 50대 낭만 과장을 연기한다. 수사보다 눈치로 자리를 보전하는 눈치 9단인 인물이지만 어느 날 중진서로 온 완승으로 인해 먹구름 잔뜩 낀 내날들이 시작된다. 유쾌한 감초 역할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안겨줄 예정이다. 이어 수사력 보다 생활력이 조금 더 강한 강력 2팀 공경장 역할을 맡은 민성욱은 강한 인상을 남겼던 전작들과는 달리 이번엔 독특한 캐릭터로 유쾌하게 다가간다. 꼼꼼하고 약착같은 생활력으로 '수사비' 절약의 달인이라는 별명까지 소유한 지독한 실력꾼으로 보는 재미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상은 중진서의 감식반 황팀

장을 맡았다. 간간함의 최고봉으로 경찰서장과 과장까지도 눈치를 보고 사는 예민한 인물 의외로 우경감(박명수)과 돈독한 사이를 유지한다고 해 두 사람이 만들어 낼 시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다양한 작품을 넘나들며 임팩트 있는 연기를 보여주는 김중수가 '추리의 여왕 시즌2'에서는 중진서장인 신서장을 맡아 존재감을 가감 없이 드러내 몰입도를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고 또한 함없이 자상한 딸바보 아버지로 변신해 새로운 매력을 뽐낼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이들이 '추리의 여왕 시즌2'의 배경이 되는 중진서를 책임지는 인물들을 맡아 어떤 이야기를 펼쳐 나갈지 궁금증을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중진서 내에서 권상우(하완승 역), 박병은(우경감 역)과 얽혀, 제미와 감동, 긴장과 반전의 스토리를 이끌게 돼 드라마에 대한 설렘을 고조시키고 있다. 오는 2월 21일 밤 10시 첫 방송.

트와이스, 음악방송 33관왕 '역대 최다 1위'



트와이스가 올해 음악방송에서 33관왕을 차지하며 역대 최다 1위 기록을 수립했다. 트와이스는 지난 24일 결방됐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SBS '인기가요'의 12월 넷째주 차트에서 '하트 셰이커(Heart Shaker)'로 1위를 차지했다. 이 곡으로만 음악방송 4관왕에 오른 트와이스는 2017년에만 'TT'로 첫 트로피를 거머쥔 후, '낙낙(KNOCK KNOCK)'으로 9관왕, '시그널(SIGNAL)'로 12관왕, '라이키(Likey)'로 7관왕, '하트 셰이커'로 4관왕을 차지해 총 33관왕에 오르는 위업을 과시했다. 음악방송에서 한 해 동안 33관왕은 현 가요계 보이 및 걸그룹을 통틀어 역대 최고 기록으로, 트와이스는 또 한 번 신기록을 세우며 원톱 걸그룹의 위상을 증명했다. 트와이스는 올해 음방 트로피를 싸늘이했 뿐 아니라 음원, 음반, MV 조회수, 해외 활동 등 다방면에서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2017년 2월 '낙낙', 5월 '시그널', 10월 '라이키', 12월 '하트 셰이커'를 선보이고 모든 활동곡을 각종 차트 정상에 올렸다. 특히 11일 오후 6시에 공개한 리패키지 앨범 '메리&해피(Merry&Happy)' 타이틀곡 '하트 셰이커'는 발매 후 각종 음원 사이트의 실시간, 일간, 주간차트를 휩쓸었고, 21일 발표된 50주차 가온차트 4관왕에도 올랐다. 앨범 '메리&해피'가 앨범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

고, '하트 셰이커'는 디지털 다운로드, 소셜차트서 정상에 차지했다. 2017년 연말까지 꼭 채운 열일 맹활약으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22일에는 'TT'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3억뷰를 돌파, 한국 여성 아티스트 사상 최초로 3억뷰 MV를 보유한 팀에 등극했다. 아울러 트와이스는 데뷔곡 '우아하게(OOH-AHHH하게)'부터 '라이키(Likey)'까지 '활동곡 MV 6연속 1억뷰 돌파'라는 신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독보적인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23일 일본 오리콘이 발표한 '연간 음악, 영상(DVD, Blu-ray)' 랭킹에 따르면 트와이스는 신인 아티스트 토탈 세일즈 1위, 10월 18일 발매한 일본 첫 싱글 'One More Time'으로 신인 아티스트 싱글 랭킹 1위, 6월 28일 발표한 일본 데뷔 베스트 앨범 '#TWICE'로 신인 아티스트 앨범 랭킹 1위에 각각 오르며 3관왕을 달성했다. 해당 랭킹에서 3관왕은 해외 여성 아티스트로는 최초이며, 해외 아티스트는 엑소 후 2년 만의 기록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데뷔 베스트 앨범 '#TWICE'는 일본 레코드협회가 25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한 앨범에 부여하는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고, 일본 첫 오리지널 싱글 'One More Time' 역시 한국 걸그룹 중 최초로 일본 레코드협회로부터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했다. 이로써 트와이스는 한국 걸그룹으로서는 최초로 같은 해 싱글과 앨범 모두 플래티넘을 인증받았고, 한국 아티스트 최초로 일본 데뷔 앨범과 첫 싱글을 모두 플래티넘으로 등극시켰다.

8% 돌파 '강식당', 나PD가 당할수록 시청자는 즐겁다

나영석 PD가 줄지에 '나노' (나영석 노예)가 됐다. 설거지 지옥 속으로 풍덩 빠지고 만 나 PD의 '벤퐁' (벤탈공과)에 시청자들은 큰 재미를 느꼈다. 이에 '강식당'은 또 다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는 쾌거를 이뤘다. 나영석 PD는 지난 26일 방송된 tvN '신서유기 외전-강식당(이하 '강식당') 4회에서 '꽃청춘 홍보 일정으로 서울로 떠난 송민호를 대신 해 주방에 투입됐다. 그가 할 일은 설거지, 고기 넘기기, 주문

체크하기, 밥 푸기 등이었다. 나 PD의 주방 투입은 강호동의 '영석이 나가 들어가'라는 발언에서 시작됐다. 나 PD는 전혀 예상치 못한 눈치 결국 "정 안 되면 내가 하겠다"라고 말한 나 PD는 줄지에 '강식당 마네', '나노'가 되어 설새 없이 설거지를 해야 했다. 또한 강호동에게는 라면 그릇을 미리 씻어놓지 않았다는 타박을, 이수근에게는 그릇을 뒤집어 놓지 않았다는 잔소리를 들었다. '강식당' 주방 일 1일자인 나 PD에게

너무나 힘든 '강식당'이었다. 결국 나 PD는 브레이크 타임에 "혼자 있고 싶어"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 웃음을 자아내기도. 나 PD가 당할수록 재미도 커져 가는 상황. 앞서 나 PD는 송민호의 남다른 능력 때문에 멤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한 끝에 '꽃청춘'과 '강식당' 제작을 약속한 경향이 있다. 늘 멤버들을 괴롭게 만드는 미션이나 설정을 만들어내던 나 PD가 반대로 멤버들에게 사정 사정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재미를 선사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나 PD가 '나노'가 되어 설거지 지옥에 빠졌다는 점만으로도 웃음을 참지 못하게 만드는 '강식당'이다. 분명 '박보검 급의 톱스타 알바생'이 등장한다고 예고됐지만, 현실은 '나노'라는 것 역시 '강식당'만이 전할 수 있는 특별함의 하나였다. '강식당' 4회의 케이블, 위성, IPTV가 통합된 유료플랫폼 가구 시청률은 평균 8.2%, 최고 9.0%를 기록, 자체 최고 시청률을 다시 한번 경신했다. 특히 타깃시청률은 평균 6.5% 전 연령층에서 지상파 포함 동시감대 1위를 달성했다.

오늘의 순세 2017년 12월 28일 목요일 (음력 11월 11일)

- ▶**쥐** 함께 일을 하고 있으면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할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차질이 없겠다. 친구 간에도 마한 가지임을 알라. 1, 2, 8월생 애정으로 갈등과 시비가 엇갈리겠다.
- ▶**돼지** 상대가 강하게 나와도 성급함을 자제하고 서서히 지혜롭게 대항하라. 상대를 제압하고 싶으면 순간적인 감성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화를 면하려면 인내하는 심정으로 자연의 법칙을 삼가고 처신하라.
- ▶**호랑이** 쉽게 생각하고, 포기하는 습관을 고치라. 작은 것에서부터 만족하고 차차로 인내력을 쌓아간다면 영화를 누릴 수 있다. 여자는 지출이 많이 예상된다.
- ▶**사슴** 성격이 느긋하고 포용력이 있으면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주위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격이다. 자존심만 버리면 별 어려움 없이 순탄하겠다. 3, 7, 10월생 뒷사람 조언을 받아들여야 할 때다. 늦은 귀가는 피할 것.
- ▶**물고기** 웬만한 일은 보아도 못 본 듯이 넘기는 것이 편하다. 참견을 많이 하면 비판을 면치 못함을 알라. 애정은 좋아하는 사람은 관심 밖이다. 엉뚱한 사람 짝사랑 하는 격이다. 1, 2, 3월생 동쪽이 길함.
- ▶**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잊었다.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방종은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때다. 2, 8, 11월생은 반성하고 근신하라.
- ▶**말** 1, 3, 9월생은 사랑하는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라.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亨通하다. 계획은 원대하게 세우고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소득이 적다. 그래도 현재 진행하는 것 더욱 전진하라.
- ▶**양** 내성적인 성격을 활발한 성격으로 바꾸면 부드러운 생활이 되겠다. 자존심만 세우지 말고 남의 말도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아량을 보이라. 7, 8, 11월생 시작하는 것이 부진하다고 용기를 잃지 말고 더욱 전진하라.
- ▶**원숭이** 남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대신 살아 줄 수는 없는 법. 자신을 너무나 비판하지 마라. 자신의 삶은 자신이 개척해야 한다. 1, 3, 9월생은 애정도 사업도 이정표를 찾아 헤메이는 격. 남, 서쪽 사람이 도움 줄 듯.
- ▶**닭** 물인지, 술인지 확실하지 못한 성격은 주변사람들에게 신뢰 받을 수 없다. 무슨 일을 하든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찾으라. 다른 것으로 바뀔보려 하지만, 한 가지도 풀리지 않는 구나. 5, 7, 11월생 자녀 문제로 고심할 수.
- ▶**개** 2, 5, 11월생은 갈 길만 바르게 보면 사업은 길하다. 7, 8, 9월생은 불만으로 어수선한 인과관계는 청산하고 안정된 생활을 찾는 것이 좋겠다. 사업도 좋고, 명예도 좋지만 무엇보다 가정이 안정돼야 모든 일이 순조롭다.
- ▶**돼지** 믿었던 사람이 가슴 아프게 할 수다. 마음은 아프겠지만, 욕심을 버리고 자중하면서 차분히 처신하라. 용, 원숭이, 토끼띠가 조금 담당하게 대해도 팔자를 원망하지 마라. 제법, 전기를 하는 자는 서서히 희망이 있다.